



전북은행, 익산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폭염에 취약한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시원한 나눔이 익산시에 전달됐다. 익산시는 지난 7일 전북은행 김은경 익산센터장과 최윤희 익산시청점장이 시청을 방문해 시원(COOL)키트 나눔사업(4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전북은행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시원(COOL)키트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시원키트는 탁상용 선풍기와 기능성 여름이불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은행은 명절 푸러미와 온누리상품권 지원, 떡국 나눔 행사, 여름철 시원키트, 겨울철 방한키트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장수소방서, 119청소년단 안전캠프 성료

장수소방서(서장 정지현)는 장수초등학교 한국119청소년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일과 6일 양일간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체험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19청소년단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타인을 돕는 '미래의 안전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3일 장계면 전북소방교육훈련센터에서는 화재 및 응급 상황 초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단원들은 건물 밖으로 연결되는 안전 사다리 등을 이용한 피난기구 활용법을 익히고, 방수체험을 통해 소방관의 역할을 직접 경험했다.

이어 6일에는 임실 전북119안전체험관을 찾아 한층 심화된 위기탈출 및 안전체험을 실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범진시스템, 아동 위한 나눔으로 온기 전해

익산시에 취약계층에 온기를 나누기 위한 손길이 전달돼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익산시는 '범진시스템(대표 김홍순)'이 지난 7일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라면 100상자(2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방학 기간 돌봄 공백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라면은 아동급식 대상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들의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범진시스템은 측사 자동화 설비를 생산·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생필품과 식료품 지원, 세금 기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평신협, 금융·진로교육으로 아동 성장 지원

'2026년 어부바멘토링' 성료... 10년째 신협 대표 사회공헌·성남잡월드 진로체험으로 마무리

전평신협(이사장 채한목)은 파송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백선영)와 함께 진행한 '2026년 신협 어부바멘토링' 프로그램을 7회기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협 어부바멘토링은 전국 신협과 지역 아동복지시설이 결연을 맺고 신협 임직원이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가 되어 금융교육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와 신협사회공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신협, 아동복지시설이 함께 추진하며 올해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 회기에는 전평신협 멘토 2명과 파송지역아동센터 아동 31명, 인솔교사 12명이 참여해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성남잡월드를 찾아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오전 7시부터 약 10시간 동안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미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전평신협과 파송지역아동센터는 2024년 업무협약을 맺고 3년간 어부바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신용의 의미, 신용관리



방법, 좋은 빛과 나쁜 빛의 구분 등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을 진행했으며, U&I 학습행동유형 검사를 활용한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기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미래 직업을 탐색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채한목 전평신협 이사장은 "금융·경제교육과 협동, 나눔의 가치를 신협 임직원들이 직접 멘토가 되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신협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어부바멘토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정읍 샘골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정읍 샘골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작업 현장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초 한국어를 익혀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농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연스러운 문화교류를 돕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8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씩 진행되고 있으며, 인사말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 회화, 농작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용 한국어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특히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편성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샘골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무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전통시장 얼음물 나눔 행사

남원의용소방대 연합회가 폭염에 지친 시민들과 상인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아 '얼음물(1000)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8월, 야외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방방 기구의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려운 시장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 대원들은 얼음물 배부와 함께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을 펼쳤다.

특히, 시장을 찾은 어르신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수분 섭취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자제 △충분한 휴식 등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하는 데 집중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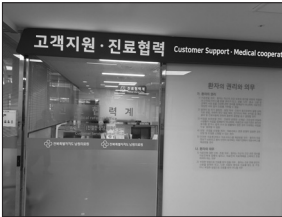
남원의료원, 고객 맞춤형 콜센터 운영 '호평'

남원의료원은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원의료원 콜센터(063-620-1114)는 개설 4개월만에 4,685건의 상담 실적과 90% 이상의 높은 응대율로 이용객에게 진료 편의와 이용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상담사례로는 검사 및 진료관련 문의가 46.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콜센터를 통하여 예약환자를 관리함으로써 환자 대기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걸음 돌리는 경우는 대부분 사라졌다고 밝혔다.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진료에 관한 대부분의 궁금증은 콜센터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기획공연 성료

진안군민과 함께하는 2026년 문화기획공연 'Space Scape : 공간경량'이 지난 7일 저녁 7시, 진안문화의 집에서 많은 군민과 방문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군민들에게 색다른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선한 예술적 감동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대무용의 현대적 감각과 전통 진안중평곡의 역동적인 신명이 독창적으로 어우러져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찬사를 받았다. 이날 무대는 현대무용의 섬세한 움직임과 지역의 자랑인 진안중평곡의 강렬한 타악 리듬이 결합된 독창적인 무용극 형태로 펼쳐졌다.

또한 전통과 현대, 공간과 경량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몰입감 높은 연출은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원영'이라고도 불렸다. 원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덕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